

## 경기

- 서울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11월 산업생산지수는 100.5(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4.5% 증가
  - 부문별로는 중공업 부문 1.1%, 경공업 부문 6.1% 각각 증가
  - 서울의 11월 제조업부문 출하, 재고 각각 증가한 의도된 재고조정 단계로 해석됨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 부문별로 백화점 및 대형마트 각각 증가
  - 서울의 1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 7,612억으로 전년동월대비 11.1% 증가
  -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경우 꾸준히 플러스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11월 백화점 판매액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패션용품으로 세일로 인한 매출증가인 것으로 판단됨
- 서울의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하락
  - 서울의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6.5(2005=100)로 전월대비 0.4% 하락
  - 상품성질별로 상품의 경우 전월대비 1.2%, 서비스는 0.1% 각각 하락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8%,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10.1% 각각 하락

## 고용

-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11월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9%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0.7%p 증가한 61.8%로 나타남
- 서울의 11월 취업자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11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02천명(2.1%)이 증가한 4,981천명임
  -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13천명(0.4%), 여자는 90천명(4.3%)이 각각 증가
  -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0.4% 감소, 전국대비(-0.2%) 0.2%p 차이를 나타냄
  -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3% 상승하여 꾸준히 플러스 증가
- 서울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하락,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11월 전년동월대비 실업률은 남자는 0.4%p 상승한 5.1%, 여자는 0.9%p 하락한 2.7%로 나타남
  - 서울의 11월 고용률은 59.3%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0.1%p 하락, 여자는 1.7%p로 상승
  - 서울의 실업률(4.1%)은 전국 실업률(3.0%)과 1.1%p 차이를 나타냈으며, 고용률의 경우 서울(59.3%)과 전국(59.2%)이 0.1%p 차이를 나타냄

## 부동산

- 서울의 11월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11월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1조 9,448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6.3% 증가
  - 공공부문에서는 기계설치 및 상하수도, 도로 공사 등의 수주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84.6% 감소, 민간부문에서는 위락시설 및 재건축주택, 공장 공사 등의 수주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62.5% 증가
- 서울의 11월 주택매매가격 8개월 연속 하락세 지속
  - 서울(-0.1%)의 주택매매가격은 부동산 시장 침체 및 계절적인 비수기 영향으로 8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함. 그러나 낙폭은 다소 축소됨
- 서울의 11월 주택전세가격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 서울(0.8%)의 주택전세가격은 강북지역의 상승폭이 둔화되며 전월대비 상승폭이 다소 축소됨

## 금융

- 서울지역 10월의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증가
  - 10월말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525조 6,561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4조 7,407억원(0.91%) 증가
- 서울의 11월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11월 신설법인수는 1,847개로 전년동월대비 4.7%(83개) 증가하였고, 전월대 비로는 8.7%(148개) 증가하였음
- 서울의 11월 부도업체 수 전월대비 증가
  - 서울의 11월 부도업체 수는 전월대비 6.3%(3개) 증가
- 서울의 11월 수출입 전년동월대비 증가
  - 11월 서울의 수출은 40.8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2.7% 증가. 수출 1순위는 평판디스 플레이 및 센서, 다음은 자동차부품, 편직물, 반도체 등의 순
  - 서울의 11월 수입은 95.0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9.7% 증가. 수입 1순위는 반도체로 나타났고 다음은 석유제품,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의 순

## | 생 · 산 |

## 서울의 11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 서울의 11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11월 산업생산지수는 100.5(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4.4% 증가
- 전년동월대비 기타제품 등은 감소하였으나, 의복 및 모피(6.6%), 인쇄 및 기록매체(11.8%) 등에서 증가

## ■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중공업, 경공업 부문 각각 감소

- 중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1.1% 증가하며 플러스 성장세로 반등
- 경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6.1% 증가하여 2개월째 플러스 성장세 유지

## ■ 전국의 11월 광공업 생산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11월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0.4%, 전월대비로는 1.4% 각각 증가
- 부문별로는 전년동월대비 컴퓨터(-5.1%), 기타운송장비(-1.3%) 등은 부진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14.4%), 기계장비(27.9%) 등의 호조로 10.4% 증가
-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부동산임대(-24.1%), 전문과학, 기술(-2.8%)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9.7%), 금융보험(8.9%), 운수(7.8%) 등이 증가하여 3.6%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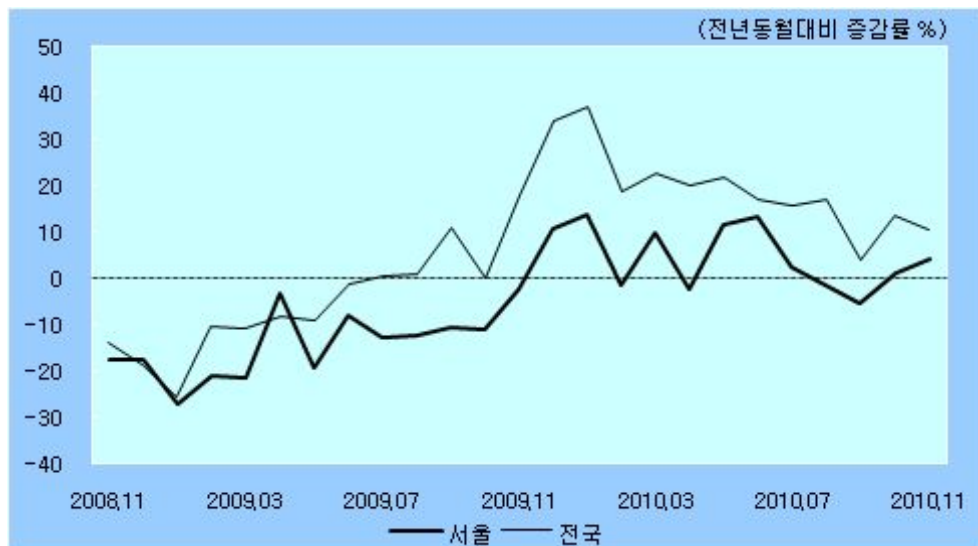
〈표〉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단위: 전년동월비, %)

구 분		2009년	2010년				
		11월	7월	8월	9월	10월p	11월p
전 년 동 월 비	서울 (제조업)	-2.1	2.7	-1.3	-5.5	1.2	4.4
	중공업	-0.2	-2.4	-13.6	-4.3	-0.6	1.1
	경공업	-3.1	5.4	5.2	-6.0	1.8	6.1
	전국	18.1	15.6	17.0	4.0	13.5	10.4

주: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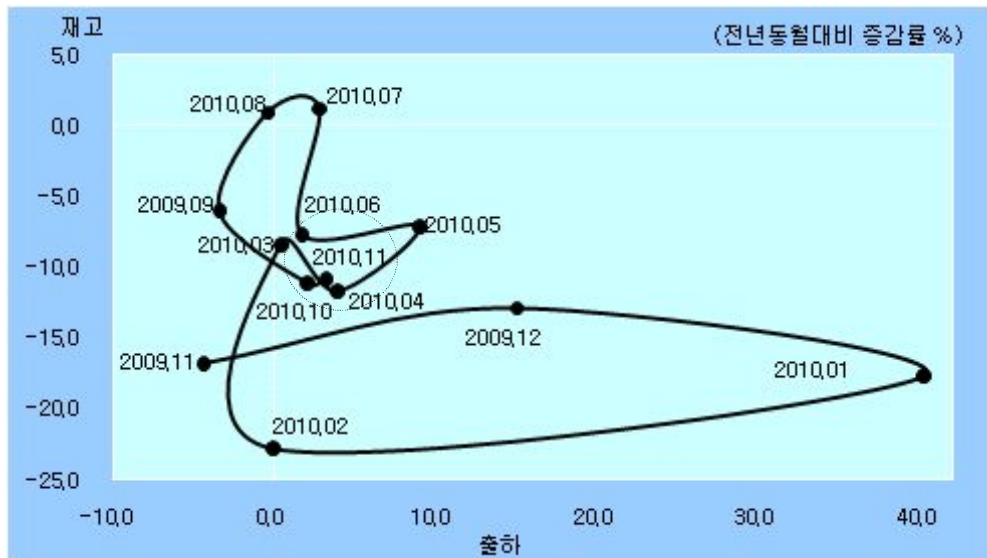
〈그림〉 서울과 전국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 출하 · 재고 순환 |

서울의 11월 제조업부문 의도된 재고증가 단계

### ■ 서울의 11월 제조업은 전년동월대비 재고, 출하 각각 증가

- 서울의 11월 재고지수는 137.4(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10.8% 감소, 업종별로는 식료품 등은 증가하였으나, 섬유제품, 의복 및 모피,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등에서 감소 함
- 출하, 재고 각각 증가하여 의도된 재고증가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Box>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 서울 제조업부문 전월대비 재고율 증가, 부문별로는 중공업 증가, 경공업 감소

- 서울의 11월 제조업부문 재고율은 137.8%로 전월대비 5.0%p 증가하였고, 전국 제조업 부문의 재고율은 100.7%로 전월대비 1.5%p 감소함
- 서울의 산업부문별 재고율은 중공업부문이 전월대비 7.2%p 감소한 139.1%를 나타냈고, 경공업부문은 10.1%p 증가한 133.9%로 나타남

〈표〉 서울과 전국의 제조업 재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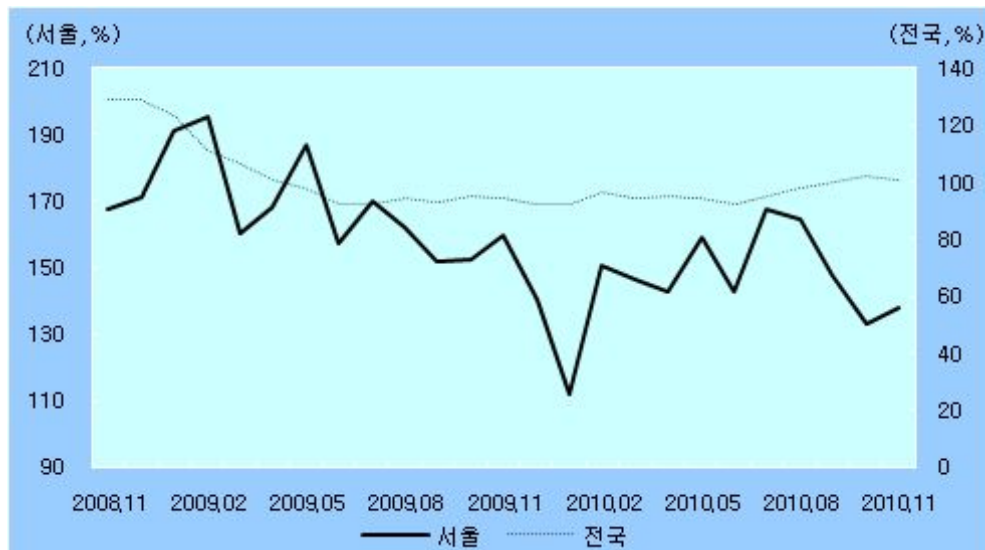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전월대비 증감
		11월	7월	8월	9월	10월p	11월p	
재고율	서울	159.4	167.4	164.4	147.8	132.9	137.8	5.0
	중공업	118.7	164.2	147.2	161.4	146.2	139.1	-7.2
	경공업	173.8	164.5	165.4	137.8	123.7	133.9	10.1
	전국	94.3	95.2	97.6	100.2	102.2	100.7	-1.5

주: 제조업에 대한 재고율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서울의 재고율 (재고 원지수 ÷ 출하 원지수) × 100,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 | 소 · 비 |

## 서울의 1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 서울의 1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1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 7,612억으로 전년동월대비 11.1% 증가
-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13.1% 증가, 대형마트 7.9%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경우 꾸준히 플러스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11월 백화점 판매액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패션용품(61.0%)이며, 대형마트는 식품(52.1%)인 것으로 나타남

## ■ 전국의 1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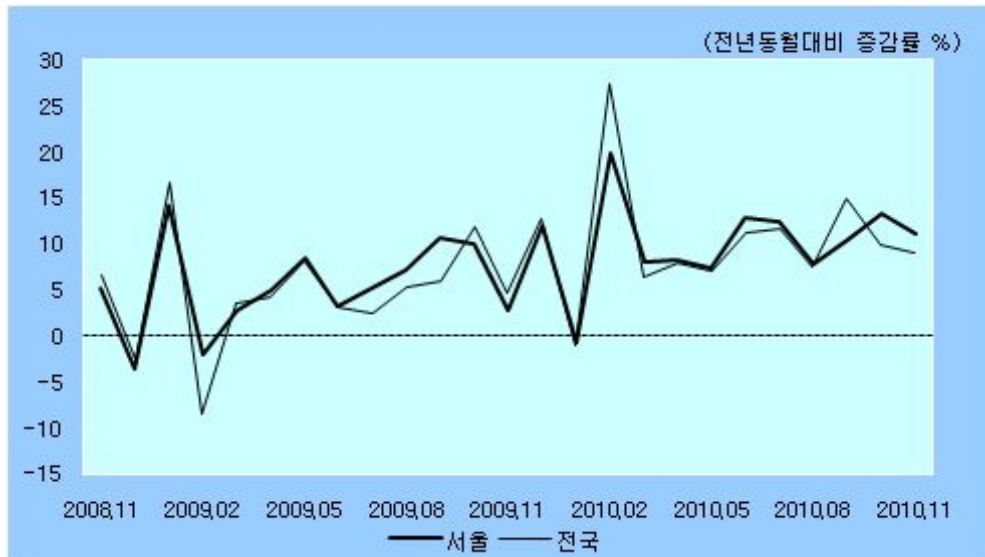
- 전국의 1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5조 0,748억으로 전년동월대비 9.0% 증가함
-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10.9%, 대형마트는 0.5% 각각 증가
- 유형별로는 컴퓨터통신기기, 가전제품, 승용차 등의 내구재가 12.3% , 오락, 의복 등의 준내구재 10.2%, 식료품, 화장품 등 비내구재는 2.7% 각각 증가

〈표〉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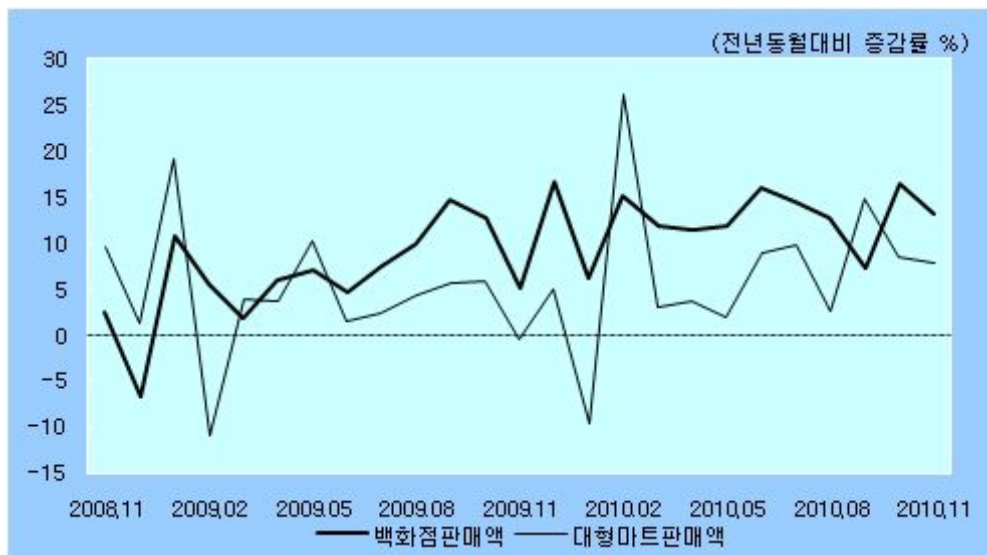
(경상금액,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9년	2010년				
		11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p
판매액	서울	1585.3 (2.9)	1508.9 (12.4)	1426.0 (7.9)	1739.8 (10.5)	1786.2 (13.4)	1761.2 (11.1)
	백화점	978.0 (5.1)	839.0 (14.5)	792.0 (12.7)	964.2 (7.2)	1130.6 (16.4)	1105.9 (13.1)
	대형마트 (할인점)	607.3 (-0.4)	669.9 (9.9)	634.0 (2.5)	775.6 (14.9)	655.5 (8.5)	655.2 (7.9)
	전국	4654.9 (4.6)	4624.3 (11.6)	4385.2 (7.6)	5306.3 (14.9)	5124.5 (9.9)	5074.8 (9.0)

주: ( )안은 전년동월비임, 대형소매점은 매장면적이 3,000m<sup>2</sup> 이상인 소매점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할인점이 대형마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 물 · 가 |

## 서울의 11월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하락

## ■ 서울의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하락

- 서울의 11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6.5(전도시:117.1, 2005년=100)로 전월대비 0.5%(전도시:-0.6%) 하락, 전년동월대비 3.2%(전도시:3.3%) 상승
- 상품성질별로 상품의 경우 전월대비 1.2% 하락, 전년동월대비 4.8% 상승, 서비스의 경우 전월대비 0.1% 하락, 전년동월대비 2.2% 상승

## ■ 서울의 11월 생활물가지수 및 신선식품지수 전월대비 각각 하락

- 소비자들의 기본생활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8%(전도시:-1.2%) 하락, 전년동월대비 3.2%(전도시:3.6%) 상승
-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를 대상으로 한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10.1%(전도시:-11.3%) 하락, 전년동월대비 34.6%(전도시:37.4%) 상승

## ■ 전국 11월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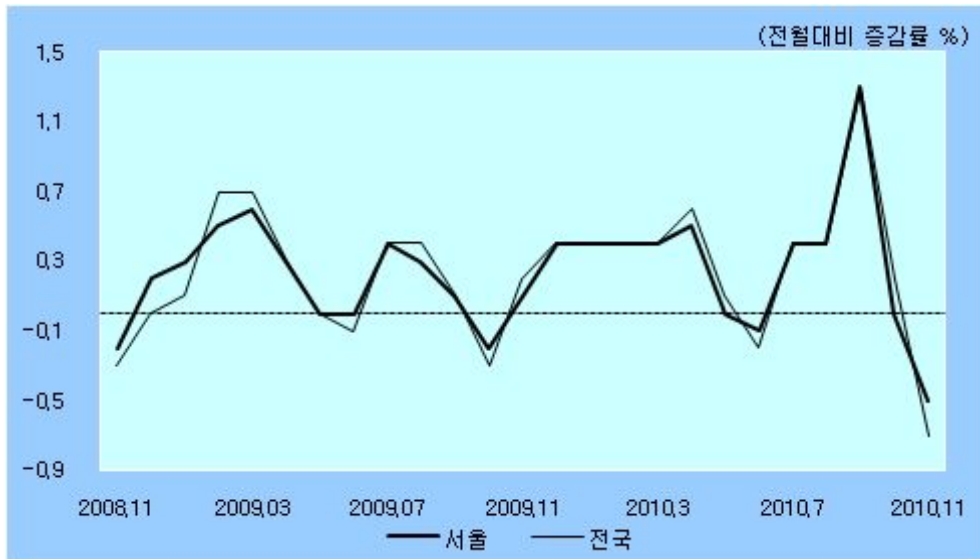
- 전국의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7.1(2005년=100)로 전월대비 0.7% 하락, 2010년 6월의 (-0.2%)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하락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1.2% 하락, 전년동월대비 3.6% 상승, 전년동기대비 3.3% 상승
- 16개 시도별 전월대비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16개 시도 모두 0.3~1.3%씩 하락하였고, 특광역시를 제외한 30개 도시별로 전월과 비교하면, 30개 도시 모두 0.3~0.9%씩 하락

〈표〉 소비자 물가 동향

(2005=100,0,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11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월비	서울		0.1 (2.5)	-0.1 (2.4)	0.4 (2.4)	0.4 (2.5)	1.3 (3.5)	0.0 (3.7)	-0.5 (3.2)
	상품 성질별	상품	0.2 (3.8)	-0.3 (3.2)	0.6 (3.2)	0.7 (3.5)	2.6 (6.0)	-0.3 (6.2)	-1.2 (4.8)
		서비스	0.1 (1.7)	0.0 (2.1)	0.3 (2.0)	0.1 (1.9)	0.4 (2.2)	0.2 (2.4)	-0.1 (2.2)
	생활물가		0.0 (2.4)	-0.4 (2.5)	0.3 (2.4)	0.3 (2.4)	1.7 (3.9)	-0.2 (4.1)	-0.8 (3.2)
	신선식품		-3.3 (3.6)	-7.3 (9.3)	4.7 (12.5)	5.5 (16.6)	22.1 (44.8)	-2.7 (44.9)	-10.1 (34.6)
	전국		0.2 (2.4)	-0.2 (2.6)	0.4 (2.6)	0.4 (2.6)	1.3 (3.6)	0.2 (4.1)	-0.7 (3.3)

주: ( )안은 전년동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추이(2005=100)

### ■ 서울의 11월 신선식품 중 무, 파, 마늘 등의 채소류 가격 큰 폭 상승

- 소비자들의 생활필수 품목 중 신선식품의 전월대비 가격동향은 채소류의 경우 평균 25.0% 감소, 나머지 양곡과 수산물의 경우 평균 6.6% 상승
- 청과류 중 배추는 103.1%, 무는 18.7%, 파는 11.1% 순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양파의 경우 전월대비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수산물의 경우 고등어 23.4% 상승, 양곡류인 쌀은 8.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표〉 신선식품 가격동향

(단위: 전월비, 원, %)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증감율
양곡	쌀	41,831	41,901	42,143	41,968	42,435	39,109	-8.5
수산	멸치	2,415	2,574	2,463	2,582	2,543	2,677	5.0
	고등어	3,000	2,568	2,500	2,500	2,714	3,545	23.4
채소	배추	3,405	4,560	4,903	7,816	7,679	3,781	-103.1
	무	1,872	2,231	2,646	2,983	4,069	3,428	-18.7
	파	3,052	2,820	2,315	4,766	5,927	5,336	-11.1
	양파	1,553	1,620	1,592	1,717	1,726	1,904	9.3
	마늘	6,982	9,787	10,713	11,383	12,329	12,096	-1.9

주: 52개 생활필수품목 중 신선식품만 선별하여 가격동향을 살펴보았음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단위: 전월대비, %)



주: 멸치(건멸치), 고등어(중품), 배추(고랭지(상품), 봄(상품)), 무(봄(상품)), 파(대파(상품)), 양파(상품), 마늘(깐마늘(상품)) 가 기준

〈그림〉 서울시 농수산물 시장의 월간 등락품목

## | 경 · 제 · 활 · 동 · 인 · 구 |

## 서울의 11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

## ■ 서울의 11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11월 15세이상 인구는 8,40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8천명(0.7%)이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는 5,19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9천명(1.9%)이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1.8%로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가사 또는 통학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3,20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1천명(-1.3%)이 감소

## ■ 전국의 11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하락

- 전국 11월 15세이상인구는 40,75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9천명(1.2%)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는 24,84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2천명(0.9%)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557천명으로 130천명(0.9%) 증가하였으며, 여자는 10,290천명으로 92천명(0.9%)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1.0%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표〉 경제활동인구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11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경제활동 인구	서울	0.1 (1.2)	1.7 (-0.1)	2.7 (0.7)	3.5 (-1.2)	3.4 (0.0)	3.6 (0.5)	1.9 (-0.3)
	남자	0.1 (1.5)	0.1 (0.2)	1.3 (0.8)	2.6 (-0.5)	2.4 (-0.4)	2.9 (0.6)	0.9 (-0.4)
	여자	0.0 (0.8)	3.8 (-0.5)	4.6 (0.6)	4.6 (-2.0)	4.6 (0.6)	4.4 (0.3)	3.3 (-0.3)
	전국	0.2 (-0.1)	0.9 (0.2)	1.9 (0.3)	1.3 (-1.6)	1.1 (0.3)	1.4 (0.4)	0.9 (-0.6)
경제활동 참가율	서울	61.1	62.1	62.5	61.8	61.8	62.1	61.8
	남자	72.8	73.1	73.6	73.2	73.0	73.4	73.1
	여자	50.0	51.8	52.0	51.0	51.2	51.4	51.2
	전국	61.1	62.0	62.1	61.1	61.2	61.4	61.0

주: (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 | 취 · 업 · 자 |

## 서울의 11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 서울의 11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11월 취업자는 4,98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2천명(2.1%)이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24천명, 여자는 2,15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13천명(0.4%), 여자는 90천명(4.3%)이 각각 증가
- 산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 4천명(100%), 건설업 31천명(8.8%), 제조업 32천명(6.4%), 전가운수·통신·금융업 45천명(5.9%),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56천명(3.0%)이 각각 증가한 반면, 도소매·음식숙박업 66천명(-4.8%)이 감소
-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0.4% 감소, 전국대비(-0.2%) 0.2%p 차이를 나타냄
-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3% 상승하여 꾸준히 플러스 증가세를 이어감

## ■ 전국의 11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11월 취업자는 24,10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3천명(1.3%)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07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1천명(1.3%) 증가하였고, 여자는 10,037천명으로 122천명(1.2%) 증가
- 연령계층별로 보면 20대를 제외한 연령계층에서는 모두 증가
-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4% 감소한 반면 고령층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0.6%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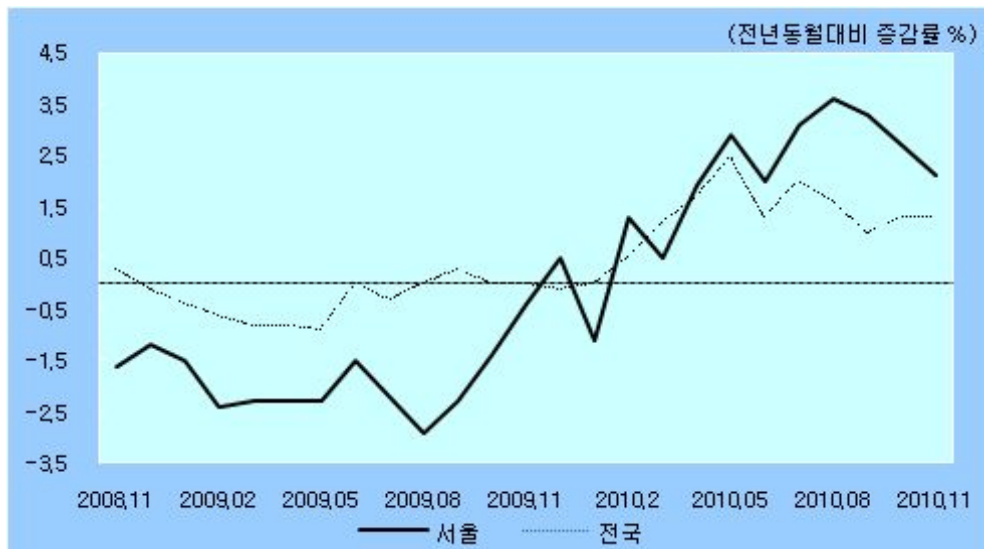
〈표〉 연령별 취업동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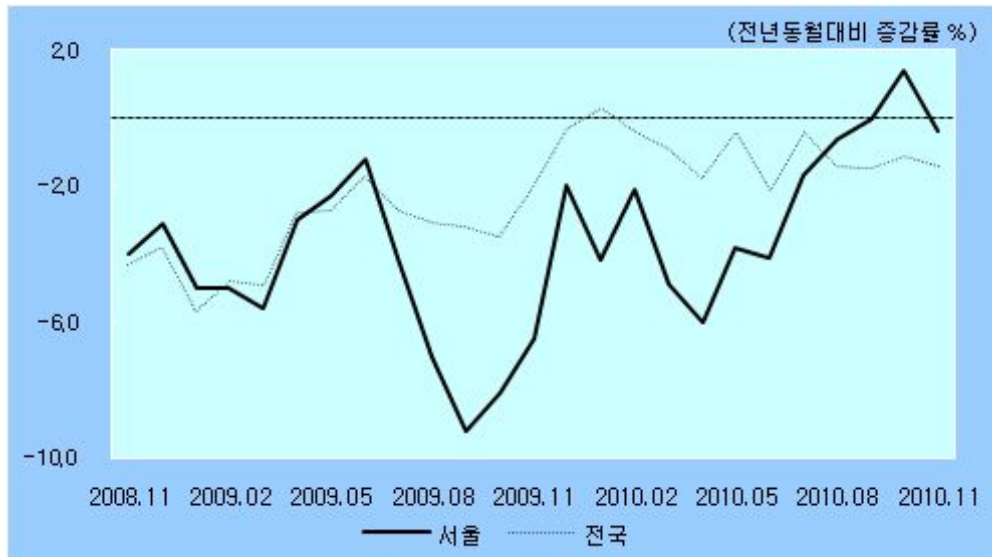
구 분		2009년	2010년					
		11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취업자	서울	-0.4 (0.8)	2.0 (-0.1)	3.1 (0.5)	3.6 (-1.0)	3.3 (0.0)	2.7 (0.3)	2.1 (0.2)
	남자	0.0 (1.1)	0.5 (0.3)	2.0 (0.7)	3.0 (-0.4)	2.6 (-0.4)	1.8 (0.2)	0.4 (-0.2)
	여자	-0.9 (0.4)	4.1 (-0.6)	4.6 (0.2)	4.5 (-1.8)	4.1 (0.4)	4.0 (0.4)	4.3 (0.7)
	전국	0.0 (-0.2)	1.3 (-0.1)	2.0 (0.1)	1.6 (-1.2)	1.0 (0.2)	1.3 (0.5)	1.3 (-0.3)
청년층 취업자	서울	-6.5 (1.6)	-4.1 (-1.2)	-1.7 (1.8)	-0.6 (-2.9)	0.0 (-2.8)	1.4 (0.6)	-0.4 (-0.2)
	전국	-2.0 (1.7)	-2.1 (-1.9)	-0.4 (3.1)	-1.4 (-4.0)	-1.5 (-2.0)	-1.1 (-0.5)	-1.4 (1.4)
고령층 취업자	서울	13.1 (0.8)	7.8 (-0.4)	10.6 (0.8)	8.9 (-2.3)	7.8 (2.7)	3.5 (-0.9)	1.3 (-1.3)
	전국	1.3 (-4.2)	2.4 (0.9)	3.4 (-1.1)	1.7 (-1.5)	0.9 (1.1)	0.8 (0.4)	0.6 (-4.4)

주: (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60세 이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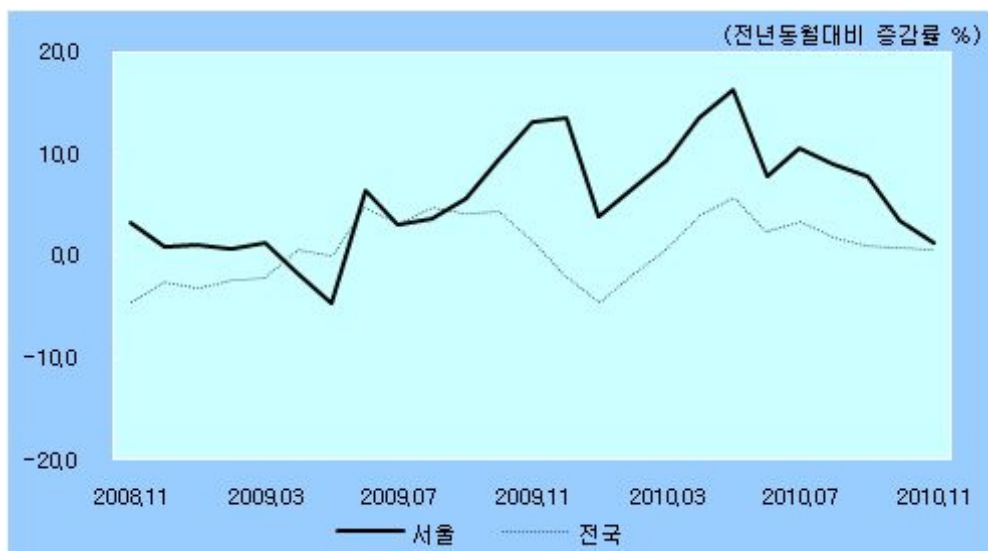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증감률 추이

#### ■ 서울의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기계조작·단순종사자 등은 증가

- 직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숙련종사자 7천명(150.0%), 사무종사자 78천명(9.3%),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84천명(6.4%)이 각각 증가
- 서비스·판매종사자 33천명(-2.6%), 전문·기술·행정관리자 33천명(-2.3%)이 각각 감소하였음

#### ■ 서울의 비임금근로자 전년동월대비 감소, 임금근로자 전년동월대비 증가

- 비임금근로자는 1,179천명이었고, 임금근로자는 3,80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비임금근로자는 24천명(-2.0%)이 감소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26천명(3.4%)이 증가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1천명(-3.0%)이 감소하였으나, 무급가족종사자는 7천명(4.1%)이 증가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103천명(5.1%), 임시근로자는 14천명(1.1%), 일용근로자는 9천명(2.1%)이 각각 증가

#### ■ 서울의 36시간 미만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증가, 일시휴직자 감소

- 취업시간대별로 보면, 36시간미만 취업자는 57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2천명(6.0%)이 증가하였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4,35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4천명(1.7%)이 증가
-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1~17시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9천명(10.1%)이 증가하였고, 18~35시간 취업자는 14천명(3.8%)이 증가
- 36시간 이상 취업자 중 36~53시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12천명(4.0%)이 증가하였으나, 54시간 이상 취업자는 39천명(-2.6%)이 감소
- 일시휴직자는 5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천명(-6.6%)이 감소
-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6.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5시간 감소



〈표〉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동향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11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산업별	제조업	-6.6 (1.2)	5.1 (-0.4)	5.6 (-0.8)	9.0 (-0.6)	9.2 (-0.8)	11.6 (3.2)	6.4 (-3.6)
	SOC 및 기타서비스업	0.4 (0.8)	1.7 (-0.1)	2.8 (0.6)	3.0 (-1.1)	2.6 (0.0)	1.7 (-0.1)	1.5 (0.7)
	사업·개인·공공서비스	2.1 (0.1)	2.0 (0.5)	3.3 (0.9)	2.2 (-2.8)	3.5 (0.7)	2.1 (-0.3)	3.0 (1.0)
	도소매·음식숙박	3.0 (1.5)	-2.5 (-4.2)	-0.7 (1.9)	-0.8 (-0.1)	-2.8 (-0.5)	-3.9 (-1.0)	-4.8 (0.6)
	전기·운수·통신·금융	1.2 (0.5)	6.5 (2.8)	3.1 (-3.9)	5.0 (0.2)	3.8 (0.0)	5.6 (2.9)	5.9 (0.8)
	건설업	-15.8 (2.4)	5.2 (6.1)	13.1 (4.1)	18.0 (2.0)	16.0 (-1.3)	12.5 (-1.8)	8.8 (-1.0)
직업별	전문·기술·행정관리자	2.4 (0.2)	0.3 (1.1)	-0.2 (0.1)	-2.3 (-3.0)	-2.9 (-0.5)	-1.9 (0.8)	-2.3 (-0.2)
	기능·기계작·조립·단조종사	-3.3 (2.4)	10.0 (-0.2)	13.7 (1.2)	15.1 (-1.1)	16.0 (0.7)	11.8 (-0.3)	6.4 (-2.6)
	서비스·판매종사자	-2.5 (-0.7)	-4.7 (-3.0)	-3.4 (0.9)	-1.2 (0.5)	-1.1 (0.8)	-4.1 (-1.3)	-2.6 (0.9)
	사무종사자	3.3 (1.7)	2.7 (2.1)	2.1 (-0.7)	3.5 (0.3)	0.8 (-1.7)	6.5 (2.6)	9.3 (4.4)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0.3 (1.0)	3.2 (0.1)	4.8 (0.8)	5.5 (-0.6)	4.6 (-0.3)	4.3 (0.6)	3.4 (0.2)
	비임금근로자	-2.4 (0.2)	-1.4 (-1.0)	-1.8 (-0.6)	-2.1 (-2.2)	-0.8 (1.0)	-1.9 (-0.8)	-2.0 (0.2)

주: (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 | 실 · 업 · 률 |

## 서울의 11월 실업률 하락, 고용률 상승

## ■ 서울의 11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감소

- 서울의 11월 실업자는 21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천명(-1.5%)이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5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천명(11.0%)이 증가하였으나, 여자는 59천명으로 19천명(-23.9%)이 감소
- 실업률은 4.1%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5.1%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하였으나, 여자는 2.7%로 0.9%p 하락

## ■ 전국의 11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감소

- 11월 실업자는 73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2천명(-10.0%)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8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1천명(-9.6%) 감소하였고, 여자는 25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천명(-10.7%) 감소
-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3.3%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하였고, 여자는 2.5%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
- 계절조정 실업률은 3.2%로 전월대비 0.4%p 하락

## ■ 서울 및 전국의 11월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각각 상승

- 서울의 11월 고용률은 59.3%로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9.3%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여자는 49.9%로 1.7%p 상승
- 서울의 고용률은 전국의 고용률(59.2%)과 0.1%p 차이
- 전국의 11월 고용률은 59.2%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70.6%, 여자는 48.2%로 전년동월과 동일
- 연령계층별로 보면 20대와 60세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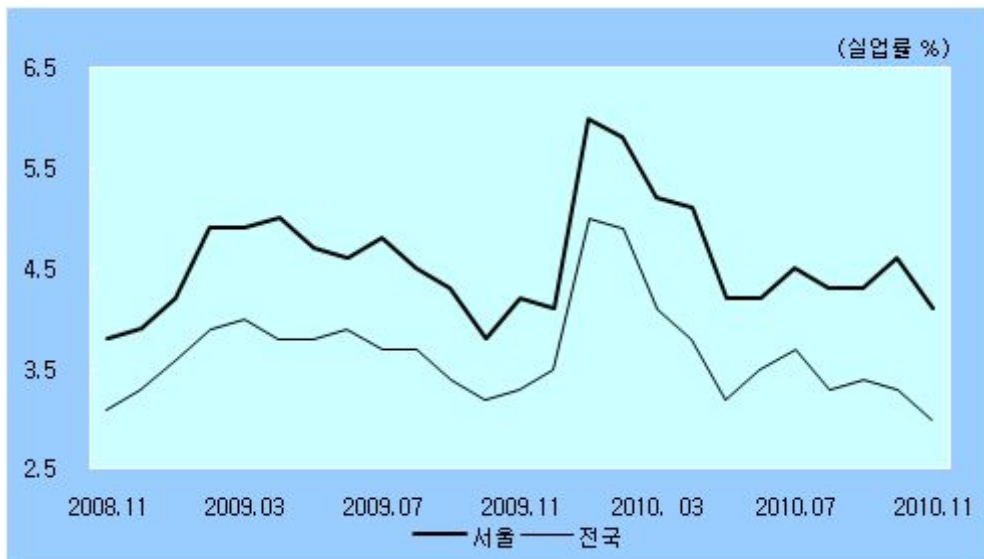
〈표〉 서울의 실업 동향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11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실업률	서울	4.2	4.2	4.5	4.3	4.3	4.6	4.1
	남자	4.7	4.9	5.0	4.9	4.9	5.3	5.1
	여자	3.6	3.3	3.7	3.4	3.6	3.6	2.7
	전국	3.3	3.5	3.7	3.3	3.4	3.3	3.0

		2009년				2010년		
		1/4	2/4	3/4	4/4	1/4	2/4	3/4
청년층 실업률	서울	8.9	7.8	8.4	7.8	10.0	8.1	7.7
	전국	8.6	8.0	8.1	7.6	9.5	7.7	7.6
고령층 실업률	서울	2.0	3.2	2.0	1.7	7.2	4.3	3.1
	전국	1.6	1.9	1.6	1.5	5.8	2.1	2.0

주: (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60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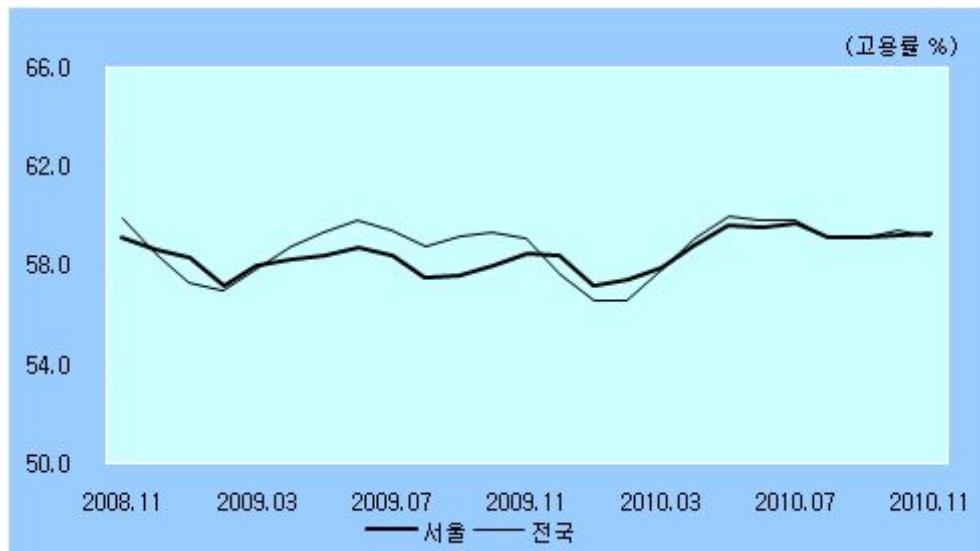
〈표〉 서울의 고용 동향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11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고용률	서울	58.5	59.5	59.7	59.1	59.1	59.2	59.3
	남자	69.4	69.5	70.0	69.6	69.4	69.5	69.3
	여자	48.2	50.0	50.1	49.2	49.4	49.5	49.9
	전국	59.1	59.8	59.8	59.1	59.1	59.4	59.2

		2009년				2010년		
		1/4	2/4	3/4	4/4	1/4	2/4	3/4
청년층 고용률	서울	43.9	45.6	43.8	42.8	42.8	44.1	44.0
	전국	39.9	41.1	40.7	40.1	40.1	40.8	40.6
고령층 고용률	서울	28.7	30.3	31.1	32.5	29.4	32.7	32.7
	전국	33.2	38.3	38.9	36.4	31.4	38.4	38.2

주: (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60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고용률 추이

## | 건 · 설 · 경 · 기 |

## 서울의 11월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 서울의 11월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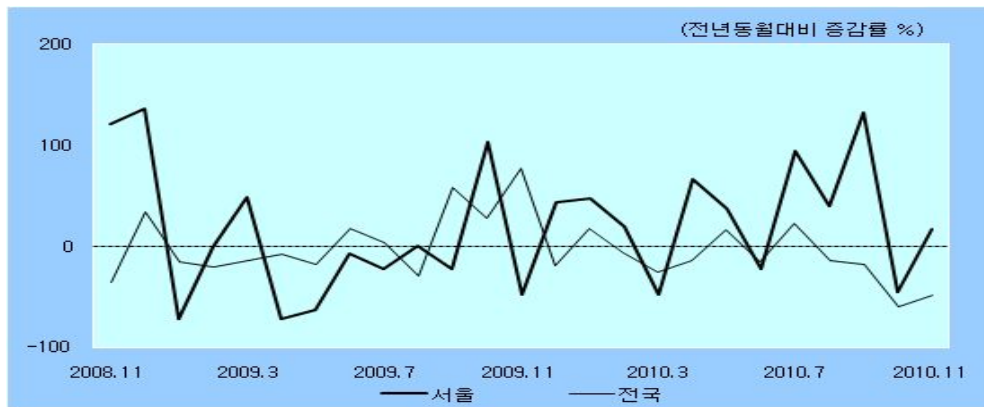
-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1조 9,448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6.3% 증가
- 전국의 건설수주액은 7조 4,589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8.7% 감소
-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전국대비 26.1%를 차지
- 공공부문에서는 기계설치 및 상하수도, 도로 공사 등의 수주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84.6% 감소. 민간부문에서는 위락시설 및 재건축주택, 공장 공사 등의 수주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62.5% 증가
- 공종별로는 건축부문이 63.4% 증가, 토목부문은 97.4% 감소

〈표〉 건설수주액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9년	2010년					전년동월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11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서울		1,673	1,530	1,285	2,101	1,045	1,945	16.3	86.1
발주자별	공공	512	231	71	185	192	79	-84.6	-58.9
	민간	1,148	1,299	1,214	1,899	853	1,866	62.5	118.8
공종별	건축	1,182	1,419	1,150	1,914	898	1,932	63.4	115.1
	토목	490	111	136	188	148	13	-97.4	-91.2
전국		14,538	7,346	4,010	7,381	4,274	7,459	-48.7	74.5

주: 발주자별 수주액은 국내외국기관, 민자공사 수주액이, 공종별 수주액은 전문공사 수주액이 제외된 수치임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설수주액 추이

##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서울의 11월 주택매매가격 8개월 연속 하락세 지속

## ■ 전국의 11월 주택매매가격 3개월 연속 상승

- 11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지방지역을 중심으로 한 상대적인 강세가 지속되면서 3개월 연속 상승함

## ■ 서울의 11월 주택매매가격 8개월 연속 하락세 지속

- 서울(-0.1%)의 주택매매가격은 부동산 시장 침체 및 계절적인 비수기 영향으로 8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함. 그러나 낙폭은 다소 축소됨

〈표〉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2008.12=100.0,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11월	10월	11월		
서울		102.6	101.4	101.4	-1.2	-0.1
아파트		102.6	100.4	100.3	-2.3	-0.1
지역별 주택매매	강북	101.9	100.6	100.5	-1.4	-0.1
	강남	103.4	102.3	102.3	-1.1	0.0
전국		101.3	102.6	103.0	1.6	0.4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 강북은 8개월 연속 하락세 지속

- 강북지역(-0.1%)은 8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한 가운데 용산구(-0.4%), 은평구(-0.2%), 성동구(-0.2%), 도봉구(-0.1%), 등에서 주로 하락하였고, 서대문구(0.1%), 중랑구(0.1%) 등에서 상승함
- 용산구가 부동산 시장 침체 지속으로 인한 관망세 확대 및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난항 등의 영향으로 하락함
- 은평구가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은평뉴타운 3지구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함
- 성동구가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 ■ 강남도 7개월만에 보합으로 전환

- 강남지역(0.0%)지역은 7개월만에 보합으로 전환됨. 강동구(0.4%)에서는 전월대비 상승하였으나 금천구(-0.4%), 구로구(-0.2%), 동작구(-0.2%), 관악구(-0.1%) 등에서는 하락함
- 강동구는 둔촌주공 및 고덕주공 재건축 기대감, 9호선 3단계 구간 연장공사 착공으로 인한 교통환경 개선 기대감 증가로 거래가 다소 활발해지며 가격이 상승함
- 금천구와 구로구는 부동산 시장 침체 지속으로 인한 매수세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거래 부진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임

#### ■ 11월 서울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8개월 연속 하락

- 서울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11월 26일 기준)은 1,795.92만원으로 전월(1,796.96만원)대비 하락한 수준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강남구(3,276만원), 서초구(2,853만원), 용산구(2,541만원), 송파구(2,378만원), 양천구(1,944만원), 광진구(1,870만원), 강동구(1,855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음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1,010만원), 도봉구(1,097만원), 중랑구(1,125원), 강북구(1,142만원) 등 순으로 나타남

##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 서울의 11월 주택전세가격 강남지역 중심으로 상승

## ■ 전국의 11월 주택전세가격 지방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지방 주요지역 공급 감소에 따른 물량부족과 신혼부부 수요, 겨울방학 대비 학군수요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1.0% 상승
- 수도권(1.0%)은 전월과 동일한 상승폭을 보였으나 서울(0.8%)은 강북지역의 상승폭이 둔화되며 전월대비 상승폭이 다소 축소됨. 광역시(1.1%)와 기타지방(1.0%)은 높은 상승률을 지속함

## ■ 서울의 11월 주택전세가격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 강북지역(0.6%)에서는 용산구(1.0%), 중구(0.9%), 도봉구(0.8%), 성동구(0.8%) 등을 중심으로 상승함
- 용산구는 광화문, 마포, 여의도 등 도심업무지구로의 출퇴근 수요 및 강남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세가격이 저렴하여 유입되는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이촌동 텍스아파트 재건축 이주수요가 유입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
- 중구는 동대문 상권과 인접하여 상인 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도심 출퇴근 근로자 수요로 교통 역세권 위주로 물량이 부족하여 가격이 상승함
- 강남지역(1.1%)에서는 구로구(1.7%), 강동구(1.7%), 양천구(1.5%), 송파구(1.3%) 등을 중심으로 상승함
- 구로구가 가산디지털단지 직장인 수요, 인근 신정·신월 뉴타운 이주 수요, 구로 뉴타운 식 광역개발 사업(강서지구) 이주수요 등으로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상승함
- 강동구는 입주 2년이 도래한 신규 아파트 단지들의 전세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단지로 유입되는 수요 증가와 기존 세입자들의 전세 재계약 선호로 인한 수요 증가 등으로 물량이 부족한 모습
- 양천구가 신정·신월 뉴타운 이주수요와 겨울방학 대비 학군수요 등의 맞물리면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함



〈표〉 전세가격 지수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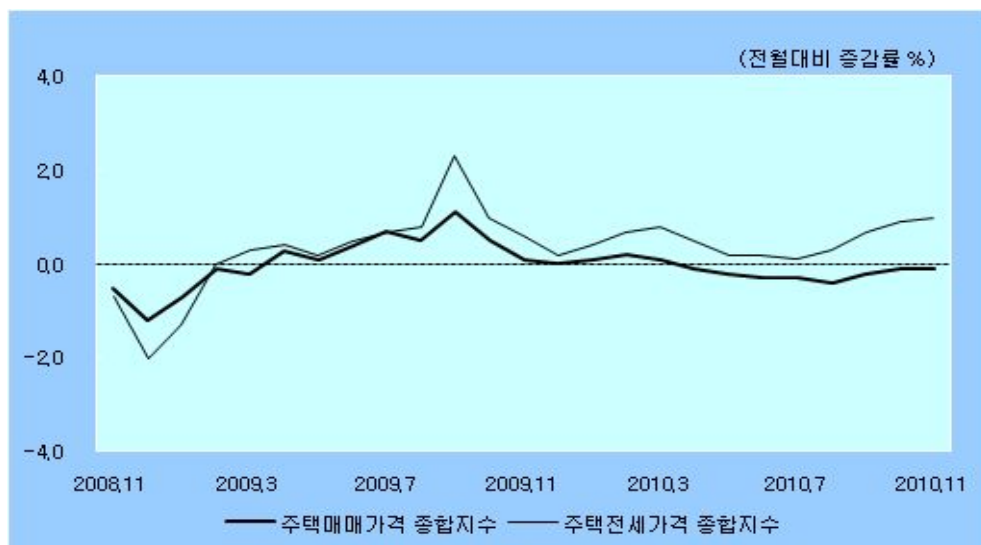
(2008.12=100.0,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11월	10월	11월		
서울		105.7	111.1	112.0	6.0	0.8
아파트		107.7	113.9	115.2	6.9	1.1
지역별 주택전세	강북	103.9	108.2	108.9	4.8	0.6
	강남	107.5	114.0	115.3	7.2	1.1
전국		103.1	108.8	109.9	6.6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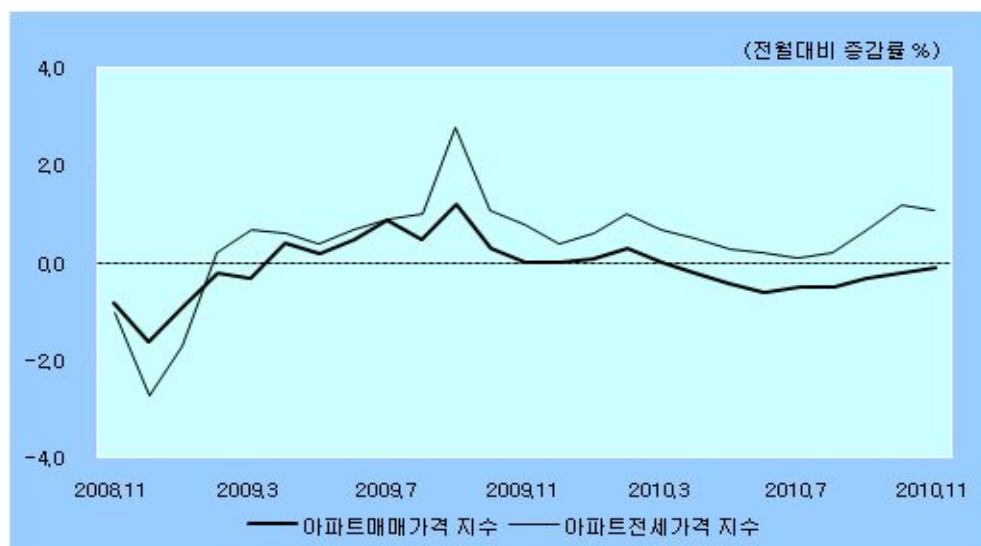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 전월대비 소폭 상승

- 11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44.0%로 전월(43.5%)보다 0.5%p 상승하여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5월 41.8% → 6월 42.1% → 7월 42.3% → 8월 42.6% → 9월 43.0% → 10월 43.5%)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전국 평균 56.8%보다 12.8%p 낮은 수준이며, 전국과의 격차는 전월(12.9%p)보다 소폭 하락
- 지역적으로 보면 그 비율은 강북 46.3%, 강남 42.1%로 강남과 강북의 격차는 4.2%p이며 지난달보다 소폭 하락한 수준. 지난 몇 달간 강남·북간 격차는 줄어들었다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복하고 있음



〈그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지수 추이



〈그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추이

## | 시 · 중 · 자 · 금 · 사 · 정 |

11월 국고채 금리 상승하였다가 큰 폭 하락

## ■ 11월 중 국고채 금리 상승하였다가 큰 폭 하락

- 11월 중 국고채(3년) 금리는 자본유출입 규제 우려, 예상보다 높은 물가상승세 등으로 3.60%까지 올랐으나 이후 저가매수자금 유입, 기준금리 추가 인상 기대 약화, 자본유출입 규제 우려 완화, 발행물량 축소 등으로 큰 폭 하락

## ■ 회사채 금리도 국고채 금리와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등락

- 회사채(3년) 금리도 국고채 금리와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등락하는 모습
- CD(91일)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당일(11.16일) 14bp 상승한 후 2.80% 수준을 유지함

## ■ KOSPI 지수 등락을 반복

- 11월 들어 코스피는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조치의 영향 등으로 1,986p(11.10일)까지 빠르게 상승하여 2007년 11월 14일 1,973p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 그러나 이후 옵션 만기일(11.11일)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 중국의 추가긴축 가능성, 유럽 재정문제 채부각,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조정받다가 12월 들어 다시 상승(7월말 1,759p → 8월말 1,743p → 9월말 1,873p → 10월말 1,883p → 11월말 1,905p)

## ■ 11월중 외국인 국내주식 순매수, 그러나 규모는 축소

- 11월 중 외국인은 국내주식을 순매수하였으나 그 규모는 축소됨  
외국인 순매수(조원): 5월 -6.3조원 → 6월 0.6조원 → 7월 3조원 → 8월 -0.6조원 → 9월 4.5조원 → 10월 4.1조원 → 11월 1.9조원

〈표〉 주요 금융지표 추이

(기간 중 평균, 단위: %, %p)

구 분		2009년	2010년					전월대비 증감 (B-A)
		11월	8월	9월	10월(A)	11월(B)	12.30일	
금 리	국고채(3년)	4.32	3.73	3.48	3.24	3.40	3.38	0.16
	CD(91일물)	2.79	2.63	2.66	2.66	2.73	2.80	0.07
	콜금리(1일)	2	2.27	2.27	2.26	2.37	2.49	0.11
	장단기 금리차 <sup>1)</sup>	1.53	1.10	0.82	0.58	0.67	0.58	0.09
주 가	KOSPI	1583.47	1,762.18	1,815.75	1,889.70	1,924.71	2,051.00	35.01
	KOSDAQ	477.15	475.35	482.36	509.94	514.88	510.69	4.94
환율 (₩/US\$)		1,163.18	1,180.05	1,162.90	1,122.23	1,128.08	1,134.80	5.85

주: 장단기 금리차 = 국고채-CD

자료: 한국은행

## ■ 11월 중 은행 가계대출 전월대비 증가규모 크게 확대

-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양도 포함)은 집단대출 이 증가한데다 주택거래 증가, 은행의 대출확대 노력, 낮은 대출금리 등의 영향으로 개별대출도 호조를 보이면서 증가 규모가 크게 확대
- 마이너스통장대출 등도 카드결제자금 수요 증가, 은행의 대출확대 노력 등으로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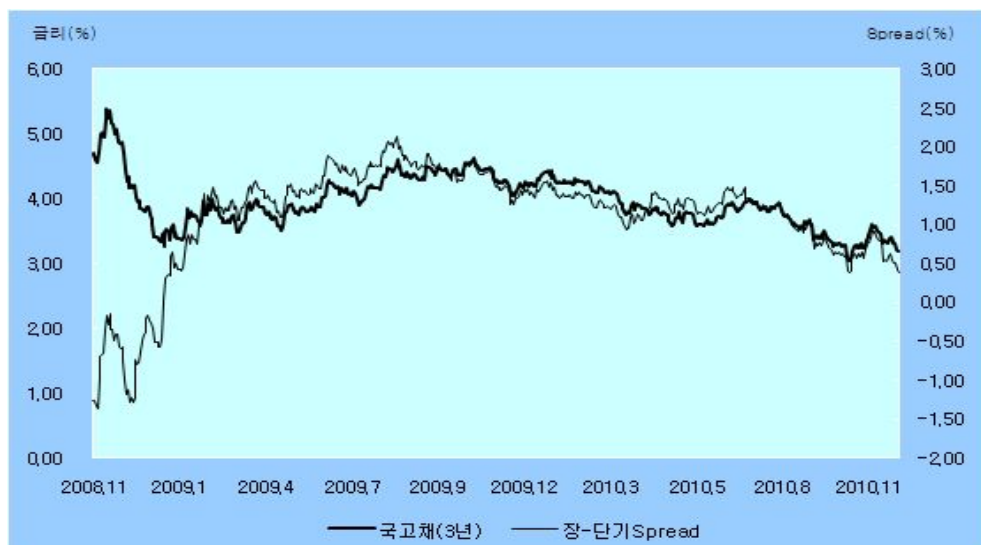
〈표〉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기간 중 말잔 증감,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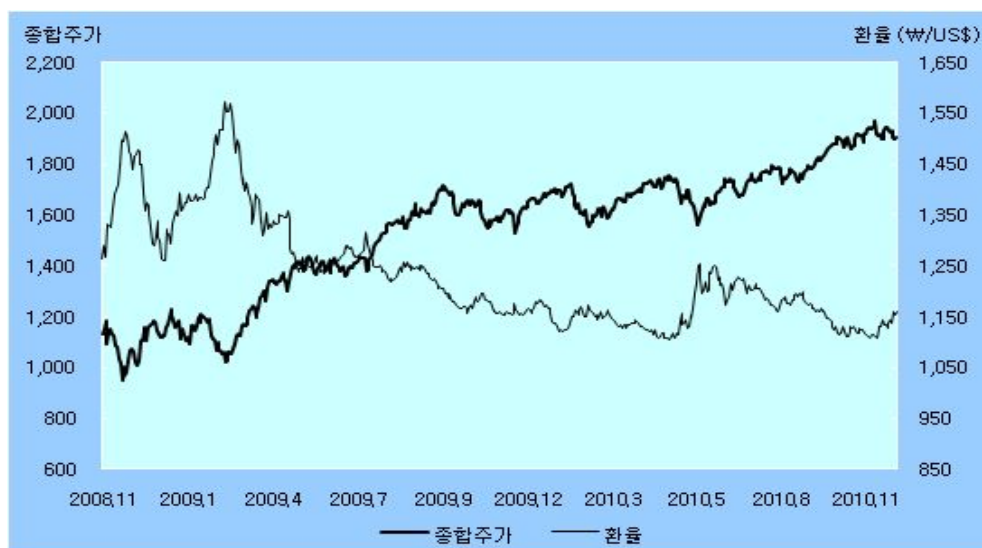
구 분		2009년	2010년					월말잔액	
		연중	7월	8월	9월	10월	11월	2010년	
								10월	11월
가계대출 <sup>1)</sup>		20.1	1.5	1.0	1.3	2.7	4.1	424.2	428.3
주택담보대출 <sup>2)</sup>		25.4	2.2	-0.3	1.7	2.2	2.9	279.0	281.9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4.5	-0.8	1.3	-0.4	0.5	1.2	144.3	145.5

주: 1)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주요 금리추이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 10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증가

- 10월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525조 6,561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4조 7,407억원(0.91%) 증가
- 10월 전국의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1,314조 417억원으로 전월대비 12조 3,749억원(0.95%) 증가

〈표〉 서울시 금융기관<sup>1)</sup> 대출금 잔액 추이

(말잔, 단위 : 십억 원, %)

		2009년	2010년				전월대비 증감액	전월대비 증감률
		10월	7월	8월	9월	10월		
서울	예금은행	418,169.70	424,302.1	423,386.5	425,692.8	428,399.7	2,706.9	0.64
	비은행기관	91,231.50	92,980.0	94,951.2	95,222.6	97,256.4	2,033.8	2.14
	합계	509,401.20	517,282.1	518,337.7	520,915.4	525,656.1	4,740.7	0.91
전국	예금은행	958,048.50	978,910.0	978,486.6	983,395.2	991,773.6	8,378.4	0.85
	비은행기관	300,619.20	312,023.7	316,512.2	318,271.6	322,268.1	3,996.5	1.26
	합계	1,258,667.70	1,290,933.7	1,294,998.8	1,301,666.8	1,314,041.7	12,374.9	0.95

주: 1)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합한 예금취급기관 기준, 생명보험사 및 증권금융은 제외됨

## | 신 · 설 · 법 · 인 · 동 · 향 |

## 서울의 11월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 서울의 11월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11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847개로 전년동월대비 4.7%(83개) 증가하였고, 전월대비로는 8.7%(148개) 증가하였음
- 11월 전국의 신설법인 수는 4,895개로 전월비로는 1.5%(73개) 증가하였고, 전년동월비로는 4.4%(205개) 증가하여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냄. 11월 실적으로는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함

## ■ 서울의 11월 서비스업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11월 중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7.8%(105개) 증가, 건설 및 설비업은 5.4%(7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제조업은 6.5%(18개) 감소하였음

〈표〉 산업별 신설업종

(단위: 개소, %)

구분	2009년	2010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11월	8월	9월	10월	11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서울	1,764	1,686	1,485	1,699	1,847	148	8.7	83	4.7
서비스업	1,353	1,310	1,148	1,319	1,458	139	10.5	105	7.8
제조업	275	264	243	277	257	-20	-7.2	-18	-6.5
건설 및 설비업	129	104	85	99	122	23	23.2	-7	-5.4
전국	4,690	4,605	4,095	4,822	4,895	73	1.5	205	4.4

자료: 중소기업청

## | 어 · 음 · 부 · 도 · 율 |

서울의 11월 어음부도율 전월과 같은 수준

## ■ 서울의 어음부도율 전월과 같은 수준, 신설/부도법인 배율 상승

- 11월 중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2%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 전국의 어음부도율은 0.03%로 전월대비 0.02%p 상승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51개로 전월대비 6.3%(3개) 증가, 전국의 부도업체 수는 153개로 전월대비 18.6%(24개) 증가한 수준
- 서울의 신설법인/부도법인 배율은 47.4배로 전월(44.7배)보다 상승하였고, 전국의 신설법인/부도법인 배율은 47.1배로 전월(50.8배)보다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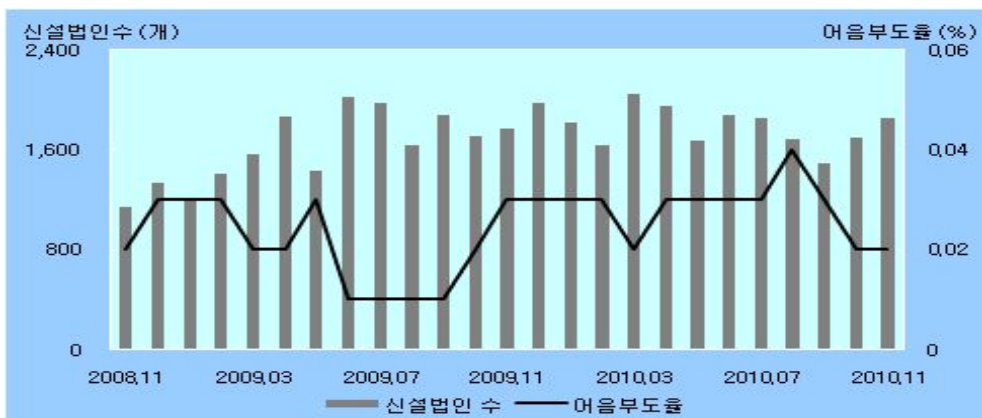
〈표〉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 수

(단위: 개소, %, %p)

구 분		2009년	2010년				전월비	
		11월	8월	9월	10월	11월	증감	증감률
서울	어음부도율	0.03	0.04	0.03	0.02	0.02	0.00	0.0
	부도업체 수	43	58	49	48	51	3	6.3
	신설/부도법인배율	81.1	38.3	41.3	44.7	47.4	2.7	-
전국	어음부도율	0.04	0.04	0.03	0.01	0.03	0.02	200.0
	부도업체 수	135	122	119	129	153	24	18.6
	신설/부도법인배율	52.2	49.5	51.2	50.8	47.1	-3.7	-

주: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수치임, 부도업체 수는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자료: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의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



## | 신 · 용 · 보 · 증 · 동 · 향 |

신용보증 건당 평균금액 2개월 연속 증가

## ■ 보증지원 건당 평균금액 증가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11월중 2,743건, 51,075백만원으로 전월대비 보증건수 31.6% 감소, 보증금액 11.2% 감소하였으며,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전월대비 30.1% 증가하였음. 전년 동월대비 보증지원 건수는 37.9% 감소하였으며, 금액은 16.4% 감소

〈표〉 월간 신용보증 추이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2009년	2010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11월	8월	9월	10월	11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건수	4,415	7,186	7,934	4,012	2,743	-1,269	-31.6	-1,672	-37.9
금액	61,133	108,917	113,010	57,509	51,075	-6,434	-11.2	-10,058	-16.4
건당평균금액	13.8	15.2	14.2	14.3	18.6	4.3	30.1	4.8	34.8

주: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 도·소매업종 지원 비중 상승

- 11월중 도·소매업종에 대한 보증지원 비중이 공급금액기준 42.5%로 전월(35.3%) 대비 7.2%p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종에 대한 지원은 21.2%로 전월(23.2%)대비 2.0%p 감소하였음. 보증건수 기준 시 도·소매업종은 36.3%로 전월(32.1%)대비 4.2%p 증가하였으며, 서비스업종은 27.5%로 전월(29.9%)대비 2.4%p 감소

〈표〉 월간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건수	215	997	489	754	288	2,743
비율	7.8	36.3	17.8	27.5	10.6	100.0
금액	4,939	21,729	8,356	10,806	5,245	51,075
비율	9.7	42.5	16.4	21.2	10.2	100.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 소기업 지원 비중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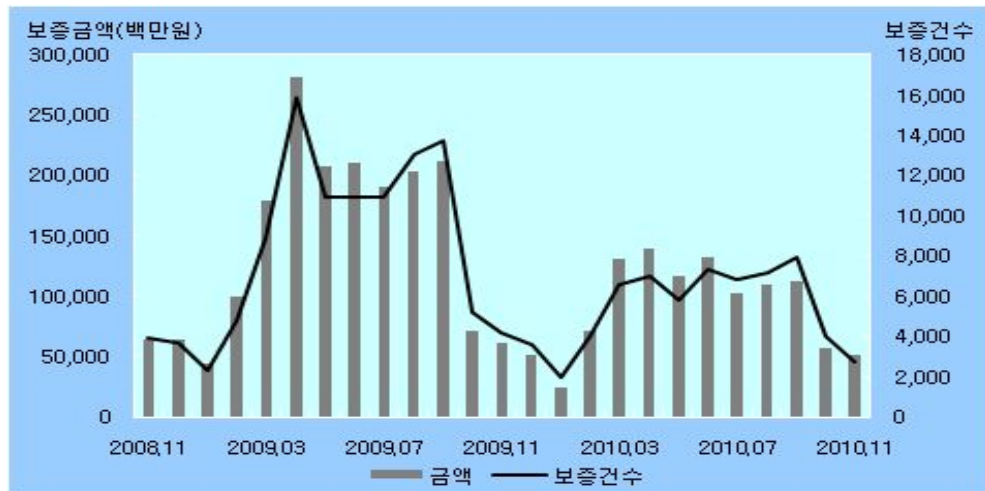
- 11월중 기업규모별 신용보증지원 비중은 소상공인이 금액기준 86.5%로 전월(92.6%) 대비 6.1%p 감소하였고 건수기준으로는 96.3%로 전월(97.7%)대비 1.4%p 감소
- 반면 소기업 지원 비중은 금액기준 11.8%로 전월(5.6%)대비 6.2%p 증가하였고, 건수기준으로도 2.7%로 전월(1.6%)대비 1.1%p 증가함. 중기업 지원 비중은 금액기준 1.7%로 전월(1.8%)대비 0.1%p 감소했으며, 건수기준은 1.0%로 전월(0.7%)대비 0.3%p 증가

〈표〉 월간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p)

구분		2010.9	2010.10	2010.11	전월대비증감
소상공인	건수	7,749	3,919	2,641	-1,278
	비율	97.7	97.7	96.3	-1.4
	금액	105,764	53,252	44,180	-9,072
	비율	93.6	92.6	86.5	-6.1
소기업	건수	110	64	74	10
	비율	1.4	1.6	2.7	1.1
	금액	4,542	3,235	6,018	2,784
	비율	4.0	5.6	11.8	6.2
중기업	건수	75	29	28	-1
	비율	0.9	0.7	1.0	0.3
	금액	2,704	1,022	877	-145
	비율	2.4	1.8	1.7	-0.1
합계	건수	7,934	4,012	2,743	-1,269
	비율	100	100	100	0
	금액	113,010	57,509	51,075	-6,434
	비율	100	100	100	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보증건수 동향

## | 수 · 출 · 입 · 동 · 향 |

## 서울의 11월 수출입 전년동월대비 증가

## ■ 서울의 11월 수출입 전년동월대비 증가

- 11월 서울의 수출은 40.8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2.7% 증가하였고, 수입은 95.0억 달러로 39.7% 증가
- 11월 전국의 수출은 412.9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1.5% 증가하였고, 수입은 386.2억 달러로 30.8% 증가

## ■ 서울의 11월 수출 1순위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수입 1순위는 반도체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가 529,723천 달러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자동차부품, 편직물, 반도체 등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반도체가 가장 많아 724,706천 달러에 달하였으며, 다음은 석유제품,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 순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수출의 경우 자동차부품으로 전년동월대비 142.8% 증가, 수입의 경우 항공기 및 부품으로 전년동월대비 349.5% 증가

〈표〉 수출입

(단위: 백만 불, %)

구 분		2009년	2010년					전년동월비	
		11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증감	증감률
서울	수출	3,328	4,090	3,783	3,758	4,172	4,083	755	22.7
	수입	6,805	8,960	8,640	8,899	8,768	9,504	2,699	39.7
전국	수출	33,992	40,949	36,965	39,509	43,358	41,292	7,300	21.5
	수입	29,535	35,443	35,247	34,978	36,880	38,621	9,086	30.8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출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9년 11월		2010년 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3,328,254	42.0	4,083,370	22.7
1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343,463	917.9	529,723	54.2
2	자동차부품	191,691	127.5	465,393	142.8
3	편직물	179,053	3.0	213,267	19.1
4	반도체	172,735	70.3	178,996	3.6
5	무선통신기기	133,874	-8.2	176,164	31.6
6	합성수지	152,291	106.8	163,309	7.2
7	고무제품	127,695	34.4	152,542	19.5
8	합성고무	98,194	303.9	137,057	39.6
9	컴퓨터	170,756	67.8	120,816	-29.2
10	의류	73,318	-14.2	91,552	2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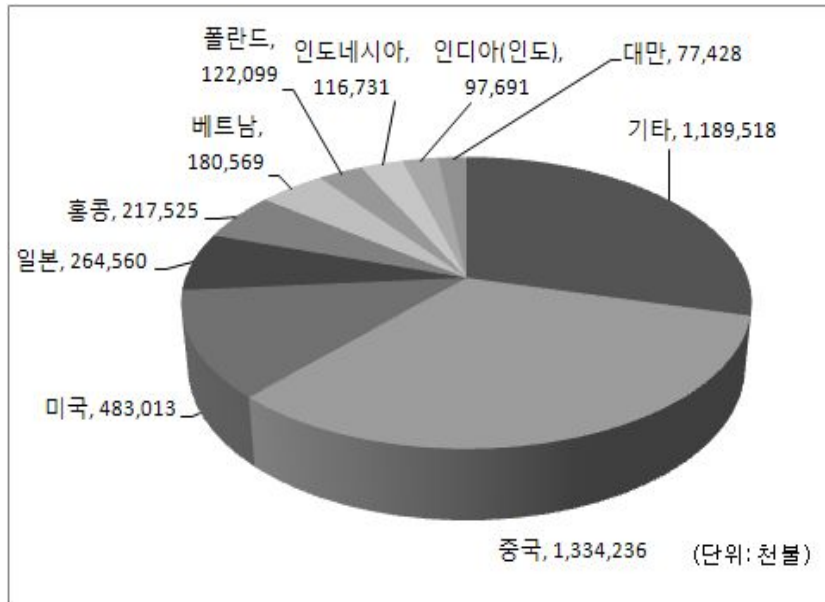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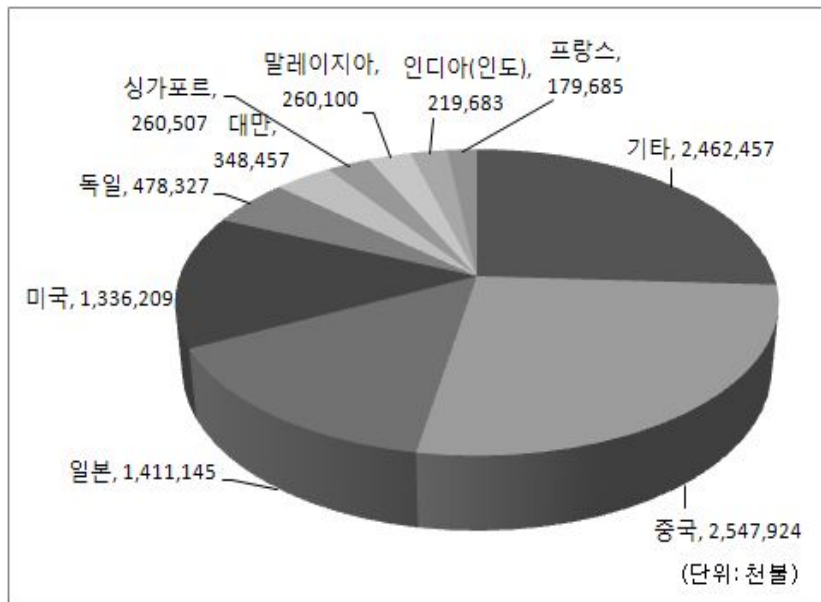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9년 11월		2010년 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6,805,337	21.8	9,504,494	39.7
1	반도체	625,340	46.2	724,706	15.9
2	컴퓨터	415,870	0.3	675,415	62.4
3	석유제품	344,485	676.8	658,167	91.1
4	무선통신기기	185,961	58.1	383,132	106
5	의류	212,396	15.3	349,947	64.8
6	항공기 및 부품	88,853	-5.1	349,484	293.3
7	자동차	225,395	91.9	298,597	32.5
8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40,593	81.9	233,206	65.9
9	플라스틱제품	179,357	153.9	229,380	27.9
10	농약 및 의약품	161,383	45.2	216,403	34.1

자료: 무역협회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출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입